

장흥 뽀뽀용zip, 오는 20~21일 '영화주간' 운영

사전 신청제... 독립영화부터 애니메이션까지... '지역 문화공간'의 시네마 실험

장흥 뽀뽀용Zip(옛 장흥교도소)에서 오는 12월 20일(토)과 21일(일) 이틀간 '영화주간' 영화 상영회를 개최한다.

이번 상영회는 지역 내 다양한 세대가 함께 영화를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문화적 장을 만들기 위해 기획됐다.

입장권을 구입한 관람객 대상으로 관람을 원하는 관객은 네이버폼을 통한 사전 신청으로 참여할 수 있다.

■ 지역에서 영화 보기, 서로의 삶을 듣는 시간

뽀뽀용Zip은 올해 무성영화 번사 공연, 서로 살림터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며 지역 문화 확산을 위한 실험적 시도를 이어왔다. 이번 '영화주간' 영화 상영회 또한 단순한 영화 관람을 넘어 지역 공동체가 함께 모여 경험을 나누는 문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상영작은 가족 관객부터 청소년, 성인 관객까지 다양한 층위의 감성을 두루 아우를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21일의 무성영화 번사극(검사와 여신생)과 독립영화(사람과 고기) GV는 장흥에서는 쉽게 접하기 어려운 특별 프로그램으로 기대를 모은다.

■ 12월 20일(금) - 따뜻한 겨울 감성의 영화 두 편

첫날에는 사회 초년생의 성장과 관계의 감정을 섬세하게 그린 영화 <3학년 2학기>와 마음 훈훈하고 따뜻해지는 영화 <로봇 드림> 두 편이 상영된다.

오후 1시 상영되는 영화<3학년 2학기>는 올해 12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상 신인감독상, 26회 부산영화평론가협회상 심사위원특별상, 45회 한국영화평론가협회상 최우수작품상/각본상을 수상하며 올해 한국독립영화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영화다. 대학 진학, 즉 '수학능력시험'을 치르지 않고 3학년 2학기에 '취업'을 선택한 직업계고 등학교 학생들의 성장담을 그린 영화로 대부분의 관객들의 따뜻한 지지를 받으며 지금도 잔잔하게 계속 흥행 중이다.

오후 4시 상영되는 <로봇 드림>(2024, 파블로 베르헤르)은 뉴욕을 배경으로 외로움에 단장을 원했던 도그와 단짝이 되어준 로봇 간의 우정을 다룬 애니메이션이다. 전체관람가이며 대사 없이 진행되는 무성영화로 휴머니즘과 상실, 회복을 따뜻하게 그려내 겨울철 가족 단위 관람객에게 특히 추천할 만하다.

■ 12월 21일(토) - 무성영화번사극 & 독립영화 <사람과 고기> 관객과의 대화(GV)

둘째 날 프로그램은 뽀뽀용Zip이 꾸준히 선보여 온 대표 공연 '무성영화번사극'으로 문을 연다. 무성영화와 번사의 해설이 결합된 형식으로, 한국 영화의 초창기 전통을 오늘날 감각으로 재해석한 공연으로, 관객들은 고전 영화를 색다르게 즐기며, 뽀뽀용Zip이 탄생

시킨 번사 서원섭 마을번사의 올해 마지막 공연이 될 것이다.

이러 상영되는 영화 <사람과 고기>는 우연히 만난 노인 3인방이 '공짜'로 고기를 먹으며 다니며 살맛 나는 인생을 맞보는 발칙하면서도 유쾌한 그리고 가슴 뭉클한 이야기를 담은 영화이다. 노년의 생활과 관계, 사회적 고립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결코 무겁지않고 유머러스하게 풀어내 관객에게 잔잔한 울림을 남긴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배우 박근형, 장용, 예수정 베테랑 배우들의 연기는 전 세대의 공감을 받으며 4만 명의 관객을 돌파하면서 더욱 화제가 되고 있다.

상영 후에는 양종현 감독과의 GV(관객과의 대화)가 마련돼 있다. 영화의 배경, 인물, 제작 과정, 지역성과 노년 문제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관객과 깊이 있는 토론을 나누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뽀뽀용Zip은 영화·공연·전시·문화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하며 '지역에서 누릴 수 있는 문화의 밀도'를 높이는 공간을 목표로 한다. 무성영화번사극을 비롯해 영화 상영회,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통해 새로운 시도를 이어오며 문화적 실험의 장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뽀뽀용Zip 관계자는 "지역에서 영화를 본다는 것은 단순히 콘텐츠 소비를 의미하지 않는다"라며 "함께 웃고 생각



하고, 관객끼리 이야기가 이어지는 경험을 만들어가고 싶다"라고 밝혔다.

장흥군 관계자는 "이번 영화주간은 우리 지역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영화 콘텐츠를 보다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체협의 역할을 할 것이다"라며, "12월 열린 '최옥삼' 뮤지컬 공연과 더불어 군민들에게 문화예술공연의 향유 기회를 앞으로도 더 넓혀나리 매김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영화주간'은 뽀뽀용zip 영화당에서 열리며, 입장권을 구매한 누구나 참여가능하고, 네이버폼으로 사전신청할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뽀뽀용zip 사업단(☎061-864-5711)로 문의하면 된다. /장흥군 제공

영암도기박물관, '흙의 선線, 손의 결結' 전시회 개최

수강생 30명 1년 동안 빚어낸 50점 작품 관람객에 선보여

영암도기박물관이 12/20일부터 내년 2/1일까지 도예 교육 수강생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영암도기 교육생 전展 : 흙의 선線, 손의 결結'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생활도예 교실·도예동아리·전문도예반 참여 수강생 30명이 1년 동안 흙과 마주 앉아 빚어낸 50점 작품을 관람객과 나누는 시간.

전시 부제인 흙의 선과 손의 결은 물레 성형과 조형 과정에서 생겨난 선과 교육생의 개성과 연습으로 빚어진 결을 함께 바라본다는 의미가 담겼다.

흙 위를 스치는 손길마다 다른 선과 결이 남듯, 수강생마다 다른 속도와 리듬으로 작품과 함께 성장해 온 과정을 이번 전시에서는 고스란히 볼 수 있다. 지난해 '일상의 온기(溫器)' 전시에서 이어 올해 교육생들은 생활도자부터 조형물까지 작품의 스펙트럼을 넓혀 관람객들을 맞는다.

영암의 황토를 재료로 한 생활도기는 실용성과 담백한 아름다움을, 장식도기와 조형 작품은 다양한 성형기법과 표면 장식으로 빚어낸 조형미를 보여준다.

두 분야 작품 모두 하나의 기능에 머물지 않고, 쓰는 그릇과 느끼는 작품의 다층

적 매력을 뽐내고 있다. 전시에는 물레 성형 중심의 전문도예반 작품, 자유로운 발상과 형식의 도예동아리 작품, 도예에 처음 입문한 생활도예교실 수강생 작품이 어우러지고 있다.

관람객들은 유약의 흐름이 남긴 선, 반복된 연습으로 다듬은 형, 의미를 담은 결을 느끼며 수강생들의 1년을 오롯이 함께 할 수 있다.

김진중 영암군 문화예술과장은 "도예는 손과 흙이 만나 선을 만들고, 그 선이 쌓여 하나의 결을 이루는 작업이다. 이번 전시에서 도예를 누구나 일상에서 시작할 수 있는 문화로 느끼길 바란다"고 추천했다.

영암도기박물관은 흙의 물성을 이해하는 초급 과정 생활도예교실, 다양한 성형기법과 표면장식을 익히는 중급 과정 도예동아리, 물레 성형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고급 과정 전문도예반을 운영하고 있다. 영암/김희선 기자

광양중마도서관, 성탄 특집 '크리스마스 매직쇼' 공연 개최

참여형 마술 공연... 12월 8일부터 선착순 80명 접수

광양중마도서관이 오는 12월 20일(토) 오후 4시 어린이실에서 성탄 특집 공연 '크리스마스 매직쇼'를 개최한다.

공연을 맡은 '뽀뽀용'은 김정호 마술사가 이끄는 어린이 전문 공연팀으로, 지난 10여 년간 어린이대공원, 청주문화재단, 삼성 어린이대축제 버블쇼 등 다양한 무대에서 5,000회 이상 공연하며 웃음과 감동을 전해왔다.

이번 공연에서는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담은 테마 마술과 풍선을 활용한 색다른 매직 퍼포먼스가 펼쳐진다. 특히 공연팀이 직접 기획한 이야기형 구성으로 아이들의 흥미와 몰입도를 높이고, 어린이가 무대에 함께 참여하는 순서도 마련해 가족 모두에게 따뜻한 성탄의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관람 신청은 12월 8일 오전 10시부터



광양시립도서관 누리집(lib.gwangyang.go.kr)에서 진행된다. 선착순 80명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관람료는 무료다. 자세한 사항은 시립도서관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중마도서관(☎ 061-797-3889)으로 문의하면 된다. 광양/신선호 기자

보성군은 12월 18일 오후 7시와 19일 오후 2시에 보성군문화예술회관에서 '서편보성소리 마당놀이 심·별'을 초연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최·주관하는 '2025년 문예회관 특성화지원사업' 신작제작형 공모에 최종 선정된 작품으로, 서편제 보성소리를 바탕으로, 판소리(심정가)와 <별주부전>을 결합한 마당놀이 형식의 공연으로 제작했다.

무대는 보성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 예술가들이 참여했으며, 서울 및 광주 창작진의 감각적인 연출과 세련된 안무 지

보성군, '서편보성소리 마당놀이 심·별' 초연 개최

서편제 보성소리로 꾸민 신나는 마당놀이극 보러오세요~

도가 어우러져 보성군의 자체 공연 제작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작품의 완성도를 한층 더 끌어올렸다.

특히, 전통 판소리의 핵심 가치인 효(孝)와 충(忠)을 현대적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트로트, 랩, 현대무용 등 다양한 장르를 융합한 재미있는 마당놀이로 만들어 세대를 초월하는 예술적인 무대를 완성한다.

군 관계자는 "보성의 젊은 예술인들이 만들어내는 이번 공연이 지역을 대표하는

새로운 공연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우리 문화를 알리기 위해 아낌없는 투자와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은 초연 이후 '서편보성소리 마당놀이 심·별' 공연의 완성도를 높여 향후 지역축제의 대표 공연으로 활용하고 전국 공연장 유통을 통해 보성소리의 대중화와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보성/김은기 기자



국민 내로남 말고는 보다는 농어촌

농 지가 있다면

지 금 바로 가입해야 할

어 금이 있습니다

기 똑같은 노후 설계 찬스~

지원대상 • 농지를 소유한 만60세 이상 농업인/영농경력 5년 이상(전체 영농기간 합산)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
• 지원대상 및 대상농지에 대한 제한사항은 별도 문의

연금수령액 • 농지가격과 연령에 따라 결정(월 300만원 한도)
• **농지가격**: 개별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액 90%

가입혜택 • 소유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 보장
• 담보농지는 자경 또는 임대소득 가능
• 6억원 이하 농지 재산세 감면

상담문의 | 1577-7770 www.fbo.or.kr